

■ 영암군, 3년 연속 '전국 행정혁신 최우수 지자체' 선정 비결

"생각을 바꾸면 혁신이 보인다"

인구가 7만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자치단체 영암군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행정혁신을 추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꾸준히 펼쳐온 혁신 노력들이 모아지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냈고, 영암군은 공직사회의 혁신을 가늠하는 정부 행정혁신평가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난 2005년부터 대통령상을 포함, 3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상금도 11억 3천만원이나 받았다.

지난 3년간 영암에선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지 그 속을 들여다 봤다.

군수·공무원·군민 격의 없는 만남

'님비' 사업도 '복덩어리'로 재탄생

▲발상의 전환이 군청과 군민 간 괴리를 줍니다.

지난해 7월 영암군은 직원 정례 조회 때 군수 앞에 놓인 단장을 없앴다. 군수와 직원간에 보이지 않는 권위의 벽을 깨기 위한 시도였다.

직원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이를 군민과의 만남으로 확대했다. 일단 각종 군민 행사에서 모든 단장을 치워버린 영암군은 길고 자루한 첨석인사 소개도 간소화했다. 또 길게는 10여명에 달하던 '생색내기용' 축사인원도 3명 이하로 제한했다.

군민과의 최일선 접촉 장소인 민원실 중간엔 민원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내 공무원과 군민

들의 거리를 코 앞으로 좁혔다.

▲하수처리장 사업으로 특허료 수입

하수처리장은 님비(Nimby) 현상이 심한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영암군은 이 사업을 통해 오히려 특허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군은 하수처리장 설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 배

스크포스팀을 구성, 기존 시설비(1억 7천만원)를 절반으로 줄이고 주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신 하수처리공법을 만들어 특허를 냈다. 이 공법으로 5개월만에 940만원(3건)의 특허수익을 올렸다.

▲공무원들은 아이디어 뱅크

직속상관에게 아이디어 제출을 며칠마다 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내부 온라인망에 사이버 껌짜 아이디어 코너를 신설했다. 또 수요 토론회 운영과 부서별 학습 동아리 활동 등 오픈리언상의 아이디어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 결과 지난해에만 모두 451개의 아이디어를 제출받아 이 중 186건을 군정에 반영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365일형 군수"로 유명하다. 휴일인 토, 일요일도 군내를 돌아다니며 군민과의 만남을 즐긴다. 단 휴일엔 타 차지 단체장과는 달리 개인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물론 수행원도 없다. 이러한 김 군수의 권위를 탈피한 군정도 행정혁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수십만마리의 가창오리 떼가 해남 고천암호를 날아 오르며 멋진 군무를 펼치고 있다. 고천암호에는 요즘 수백 명의 사진작가와 탐조객들이 몰려 가창오리떼의 환상적인 모습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 아래 오른쪽>

40만~70여만 마리 비상 '장관'

갈대밭 배경 지척에서 관찰 가능

해남 고천암호의 가창오리 군무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고천암 가창오리는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늦은 다음 달 초순에 시베리아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요즘을 고천암호에는 사진작가와 관광객 등 수백 명의 탐조객이 몰려 '사전 각본 없는' 가창오리떼의 황홀한 군무에 빠져 있다.

지난 29일 오후 6시 10분이 막 지나자 가창오리가 일제히 헬리콥터 소리에 버금가는 날갯짓과 함께 물길을 따라 날아 올랐다. 40여만 마리가 일

제히 하늘로 올라 바다로 지는 석양 빛과 함께 한 폭의 그림을 만드는 장관을 자켜 보던 이들은 "갈대밭을 배경으로 지척에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고천암호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강 하구둑과 영암호, 해남 금호

지난 10일에는 가장 많은 개체수인 70만 마리가 사흘 정도 고천암에서 군무를 했다. 고천암호 주변 곳곳에는 철새를 관찰할 수 있도록 포인트가 지정돼 있으며 일출과 일몰 때 철새들의 환상적인 군무를 구경할 수 있다.

고천암호는 길이 14km, 면적 200만 m²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갈대 군락지에서 전 세계 개체수의 95%에 달하는 가창오리떼가 겨울을 나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완도군 '보길대교' 개통식장

'깜짝' 전복 판촉활동

완도군이 보길도와 노화도를 잇는 '보길대교' 개통식장에서 '깜짝 전복 판촉활동'을 전개했다.

완도군은 지난 29일 보길 대교 개통식이 끝난 직후 디리 위에서 전복회와 구이, 전복 떡국 등으로 전복 시식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시식회는 예년 같으면 불러니가 팔려 나가야 할 전복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여파로 판매가 부진해 열리게 됐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타르 등 기름 찌꺼기가 완도 해역에는 한 점도 오지 않아 전복 등 완도 수산물을 청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청정 해역의 다시마와 미역으로 자란 완도 전복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식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통식 참석자들은 "판매 부진으로 시름에 빠진 어민들을 위한 완도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서울에 올라가면서 설 선물로 완도 전복을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나라별 전통 먹거리 음식 체험 행사도 열리며 떡국, 한과 등 우리 전통음식도 선보인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외국인 근로자·가정 민속문화 체험

광산구, '설 맞이' 행사

2월 3일 호남대체육관

광산구가 설 맞아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민속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다음달 3일 (사)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주관으로 호남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체험 행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가 공연된다.

또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나라별 전통 먹거리 음식 체험 행사도 열리며 떡국, 한과 등 우리 전통음식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과 그림으로 써주는 가훈, 한복입기 체험 등 각종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광산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4천3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광산구는 민선 4기 들어 외국인 근로자와의 권리신장과 다문화가정의 성공적 적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감길 광산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소외와 차별을 없애고 화합과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산구가 새롭고 건전한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장성 백암산 고로쇠 본격 시판



장소를 지정하고 18ℓ 한 통에 5만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또 수액통에 품질보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봉인후 생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지 구매를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 택배서비스도 실시하며 판매장 인근에는 민박집을 마련, 방문객이 백암산의 청정한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백암 고로쇠는 백암산의 일교차로 인해 칼슘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과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의 가인마을(061-392-7790), 남창마을(039-2891), 장성=장필수기자 bungy@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3-1140, 5210 원 011-602-2532
(광주운행 신관점업, 대인동 소방서간판)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

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얻으

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

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

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

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

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증개사

☎(02)458-505 원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 LC빌딩 사거리)

★급매 매★

첨단 민간 비어동 일반주거

지역 1000평 대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지실버시설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

만원), 230평

첨단 중심 상업매매

·정부지정 청정 지역 1000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본 앞 145평

첨단·한화·현대 145평

전통·한화 145평

한화 145평